

제 1차 식량안보 간담회 회의록

일시: 2012년 9월 7일 오후 7시

장소: 양재동 나고야

참석자: 신동화 교수(전북대), 문헌팔 박사(북방농업연), 김용택 박사(농경연),
최근원 처장(농유공), 황종환 이사장(지적재산재단), 이철호(식안연)

제1주제: 식량비축제도 입법화

- 현행 양곡관리법에 의해 60여만톤의 쌀을 비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실한 실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. (문헌팔, 김용택, 최근원)
- 국회 의원입법으로 다른 곡물에 대한 비축제도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음. 관련 자료를 최근원 처장이 구해주기로 함. (최근원)
- 쌀 매년 60만 톤과 콩 10만 톤 비축을 법제화 하는 것을 제안함.(이철호)
- 수입콩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0원 수준인데 국내산 콩값이 4000원을 넘어 8000원 대 까지 치솟고 있음. 정부가 이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음. (최근원)
- 콩, 밀, 보리, 옥수수의 일정량 비축을 관련 기업이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는 세계 지원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. (이철호, 신동화)
- 쌀의 도정율을 72%로 맞추는 관행 때문에 3-4%의 쉐미(싸래기)가 혼입되어 국산쌀의 식미가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됨. 도정율을 69% 수준으로 낮춰 완전립 100%의 고급쌀을 생산해야 국제 경쟁력이 생김. 완전립 함량 등을 고려한 쌀의 등급제 유통이 시급함.(문헌팔)
- 새만금 간척지에 곡물메이저들의 동북아 곡물저장콤비나트를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함(신동화)

제2주제: 해외농업과 기술이전 협력

- 해외농업은 도로,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정치적 불안 요인이 항시 존재함. 따라서 저개발국 보다는 미국, 호주 등 안정된 국가의 농장이 유리함. (김용택)
- 풀무원이 중국에 대규모 콩재배를 하였으나 중국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국내 수입이 좌절되었음. (김용택)
- 기술이전과 인적교류 협력을 통해 해외농장 및 식량 수입여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.(황종환)
- 몽골의 축산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축산의 형태가 시작되고 있어 이 기회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축산 기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.(문헌팔)

진지한 자유토론으로 밤 10시 넘어서 폐회함.